

2강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라!

1. 여인과의 사랑 (에로스)

■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매우 달콤한 일이었고 특히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의 육신을 탐했을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II.ii.2)

■ 나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추잡한 정욕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II.ii.2)

■ 내 영혼의 교만 때문에 내게 주어진 벌, 즉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쇠사슬 소리가 땡그랑하게 들려도 나의 귀는 어두워져서 당신을 멀리 떠났습니다. (II.ii.2)

2. 지혜에 대한 사랑 (필로소피아)

■ 이 책(호르텐시우스)은 내 마음을 아주 바꾸어 내 기도를 나의 주님이신 당신께 향하게 하였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욕구를 주었습니다. (III.iv.7)

■ 지혜를 사랑함은 희랍어로는 철학(Philosophia)이라 일컬었는데 그 책은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 나는 다만 키케로가 말하는 그 권유를 좋아한 나머지 그 책의 가르침을 따라 이 학파 저 학파를 초월하여 지혜 자체를 사랑하고, 탐구하고, 소유하고, 포용하고자 일어섰고 불타 있었습니다. ... 그 책에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III.iv.8)

1) 신플라톤주의에서 ...

- 에로스란? 육체에 갇힌 영혼이 영원의 세계를 향해 올라가는 힘.

■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며 아름답고 선한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이때 어떤 것을 갈망하고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그 갈망하는 대상이 스스로에게 결핍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에로스에 충만한 인간은 아직 하지 못한 선과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 에로스에게는 아직 선한 것과 아름다움이 결핍되어 있는 까닭에 에로스는 현재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과 아름다움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 (플라톤의 <향연>에서)

- 철학자의 하나님: 너무 비인격적이고 추상적

■ 그들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발견했지만,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다. (<신국론> 혹은 <하나님의 도성> (10.29.1))

2) 마니교에서...

■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빠져들고 말았는데 그들은 미친 듯이 교만했고 육적인 것을 너무 따랐으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III.vi.10)

3. 진리에 대한 사랑 (아가페)

나는 밀라노로 와서 그 도시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하나요, 당신의 충실한 종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 내가 나도 모르게 당신에 의하여 그에게 이끌려 간 것은 그를 통해 당신에게 이끌려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V.xiii.23)

1)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의 차이는?

- 에로스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올라가나 아가페는 인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내려오시는 사랑

2) 내 사랑의 대상은?

- 올바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 그릇된 대상을 열망하고 그리워하면 그것이 병든 사랑, cupiditas 이다.
- 사랑은 영혼을 향해 올라가고 탐욕은 지상을 향해 내려간다.

4. 오늘의 고백록 한 구절

마그누스 에스 도미네 에트 라우다빌리스 발데
Magnus es, domine, et laudabilis valde.
주님은 위대하시고 크게 찬미받을 분이시다.

1) 하나님을 부르는 말

주격	홍길동은
호격	길동아!
속격	홍길동의
대격	홍길동을

2)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 deus: 신의 일반명사, “신”
- domine: 내 하나님을 부르는 말, “주여”

5. 나의 사랑의 대상은?

- 하나님이면 ...
- 하나님이 아니면 ...